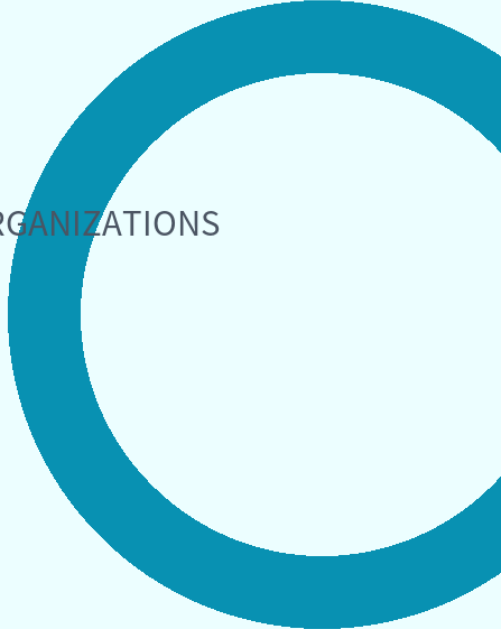




월간민예총

MONTHLY MINYECHONG

KOREAN FEDERATION OF NATIONAL ARTISTS ORGANIZATIONS



2026.04.25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화예술 현장과 활동 소식을 모았습니다.

KOREAN FEDERATION OF NATIONAL ARTISTS ORGANIZATIONS

예술이 민주주의와 일상의 숨을 불어넣는 민족예술인의 연대 조직



[월간민예총] 26-04-25

이번 호는 한국민예총과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주요 흐름을 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01 · tongilnews.com

전쟁을 반대하는 예술인들의 평화예술실천 (전문)



전쟁을 반대하는 각 분야 예술인 814명이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평화예술실천에 나섰다.이들은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10>

02 · kgnews.co.kr

경기민예총 “문체부 산하기관 인선, 낙하산 논란 사과하고 현장과 소통해야”



문화예술로 꽃피는 경기도를 위한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문화예술계와의 소통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민예총은 지난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인사 흐름이 문화민주주의

의의 가치와 배치된다”며 “보은인사, 낙하산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정책 전반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로 꽃피는 경기도를 위한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문화예술계와의 소통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민예총은 지난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인사 흐름이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와 배치된다”며 “보은인사, 낙하산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정책 전반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92915>

03 · kyeongin.com

지역 예술인들 ‘경기도 기회소득 축소’ 위기감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2025년 11월19일 인터넷 보도)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원금 감소나 대상자 선별 강화 등 지원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창작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2025년 11월19일 인터넷 보도)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원금 감소나 대상자 선별 강화 등 지원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창작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관내 지자체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와 시비를 5대5로 매칭하는 구조다.

원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2257>

04 · kmaeil.com

인천민예총, 인천 문화정책 재정립 논의...지역 생태계 중심 접근 강조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열린 '부천시민 기억문화제'가 지난 4월 11일 원미구청 진달래홀에서 시민과 예술인, 지역 단체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되었다. 부천시민기억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열린 '부천시민 기억문화제'가 지난 4월 11일 원미구청 진달래홀에서 시민과 예술인, 지역 단체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되었다. 부천시민기억문화제 추진위원회와 부천민예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오후 4시 16분 '기억의 시간'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풍물 길놀이, 아카이빙 영상, 시민 발언, 음악과 무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이번 문화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기억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을 시민의 목소리와 예술로 풀어낸 자리였다. 특히 '용기 있는 책임' 발언 시간에는 시민과 예술인,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기억과 다짐을 나누며 깊은 공감과 울림을 만들어냈다.

원문: <https://www.kgmail.kr/news/articleView.html?idxno=615869>

06 · newsis.com

현근택 용인시장 예비후보, 청년예술가 문화예술정책 간담회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용인시 청년예술가·지방선거 후보자 문화예술정책 간담회'에 참석, 청년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예비후보와 엄교섭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용인민예총 청년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계획, 문화예술 예산 확보 등 문화예술..

[속보]이 대통령, 새 해수부 차관에 남재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 임명 ESPN "퀴라소에 첫 승점 안간 골키퍼, 월드컵 최다 선방 타이"[월드컵24시] 미국, 전쟁 종식 잠정 합의에도 이란 대표팀 제한 조치 유지[월드컵24시] 독일, 코트디와ัวร์ 32강행...퀴라소는 에콰도르 상대로 첫 승점(종합)[월드컵24시] '혼혈 파이터' 카스트로프 늦어지는 데뷔...홍명보 플랜에 있나[월드컵24시] '월드컵 1000번째 경기' 앞둔 일본, 튀니지 꺾을 확률 '61.5%'[월드컵24시] [속보]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3차장 송기호 [속보]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속보]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연장 변호사 [속보]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연합뉴스 전 사장 홍명보호, 가족 품에서 충전 완료...남아공은 실내 훈련[월드컵24시] 멕시코 팬들 "홍명보호 운이 없었어...함께 올라갈 것"[인사이드 월드컵]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 스코틀랜드전 출격할 듯[월드컵24시] [속보] IDF, "레바..."

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0_0003586898

07 · view.asiae.co.kr

용인시,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 개최…32년 전통 잇다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수지구 용인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수지구 용인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이 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올해로 32회를 맞이한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은 전통문화예술의 정서를 전승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오랜 기간 시민들과 소통하며 국악, 농악 등 우리 문화예술의 멋과 맛을 시민들에게 선사해 왔다"며 "용인민예총의 뿌리인 한우리예술단의 32회째 공연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부터 청년들까지 한데 어우러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은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며 "한우리예술단을 비롯해 할미성 농악 보존회, 용인 아리랑 보존회, 양상불 더 가야금과 검무가 남지연씨 등 예술인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수지구 용인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이 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수지구 용인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린 '한우리예술단 정기...

원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40607010470070>

08 · m-i.kr

용인특례시, 용인민예총 주최 한우리예술단 전통 공연 개최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일 오후 수지구 용인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이 열렸다.용

인특레시가 후원하고 용인민예총(회장 안재식)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우리 고유의 가락과 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공연으로 꾸며졌다.공연은 농악, 민요, 가야금, 검무 등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소리와 정서, 삶의 이야기를 그려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할미성 ...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672>

09 · newspeak.kr

이상일 용인특레시장 “용인민예총 뿌리인 한우리예술단 32회째 공연 축하”



[뉴스피크] 이상일 용인특레시장이 4월 5일 오후 수지구 용인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린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용인특레시가 후원하고 용인민예총(회장 안재식)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우리 고유의 가락과 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공연으로 꾸며졌고, 이상일 시장은 1시간 40분간 진행된 공연을 끝까지 지켜본 뒤 공연단을 격려했다.공연은 농...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872631>

10 · kyeonggi.com

한병환, 부천민예총과 간담회...“예술인 머무는 문화도시로”



더불어민주당 한병환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부천민예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생태계 복원과 문화행정 혁신 의지를 밝히며 ‘문화도시 부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부천민예총과 만나 부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예술인

경기일보 뉴스

원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5580045>

11 · news.skbbroadband.com

부산 선거, 시민이 뽑은 19개 정책



[앵커]6.3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6개 분야 19개 시민정책들인데요. 주요

6.3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6개 분야 19개 시민정책들인데요. 주요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경실련과 민예총 등 시민운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할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원문: <https://news.skb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884>

12 · ksilbo.co.kr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매달 1회...‘민예 아카데미’ 개최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김교학)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울산교육청 2층 다산홀에서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 ‘민예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지역 예술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과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함께 고민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본문영역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매달 1회...‘민예 아카데미’ 개최 바로가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권지혜 기자 ji1498@ks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원문: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128>

13 · iusm.co.kr

예술 자율성과 사회적 역할 재조명 ‘예술 아카데미’ 개강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울산민예총)이 마련한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의 첫 강의가 지난 13일 울산 교육청 2층 다산홀에서 개강했다.이강민 전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의 ‘모방과 영감 사이’를 주제로 열린 첫 강의는 민예총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해 예술의 자율성 개념의 변천사를 들여다봤다.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지역 예술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강의, 워크숍, 자유 토론 등으로 열릴 예정이다. 총 8회차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4월 기초 개념 강의를 시작으로 정책, 문학, 극, 국악, 미술, 음악, 춤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된다. 강의는 각 분야 전문가와 예술인이 강사로 참여할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울산민예총)이 마련한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의 첫 강의가 지난 13일 울산 교육청 2층 다산홀에서 개강했다. 이강민 전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의 ‘모방과 영감 사이’를 주제로 열린 첫 강의는 민예총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해 예술의 자율성 개념의 변천사를 들여다봤다.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지역 예술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강의, 워크숍, 자유 토론 등으로 열릴 예정이다. 총 8회차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4월 기초 개념 강의를 시작으로 정책, 문학, 극, 국악, 미술, 음악, 춤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된다. 강의는 각 분야 전문가와 예술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는 울산민예총이 생기기 이전인 일제강점기부터 4·19혁명, 5·18광주항쟁, 6·10민주화 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국면에서 예술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

원문: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694>

14 · ujeil.com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찾기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울산민예총)이 예술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지역 예술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울산민예총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이하 민예 아카데미)’를 울산교육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천’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 현대사의 주요 분기점에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됐던 예술의...

울산민예총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민예총 예술 아카데미(이하 민예 아카데미)’를 울산교육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천’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 현대사의 주요 분기점에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됐던 예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4·19혁명, 5·18광주항쟁, 6·10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국면마다 함께했던 예술의 가치를 공유한다.

원문: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223>

15 · jjn.co.kr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전북민예총, 이사장 박정훈)은 24일 오후 7시 더클래식아트홀에서 “제23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예술의 삶모와 예술가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변화를 비롯해 AI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인간 예술가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와, 중앙 집중식 정책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는 ‘문화 자치’의...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99>

16 · ccreview.co.kr

"망각과 맞서 싸우는 일"...세월호 12주기 총북기억문화제



[충청리뷰 최산 기자]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났다. 그 사이 강산이 한 번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참사도 반복됐다. 그래도 4월 16일이 되면 사람들은 모인다

[충청리뷰 최산 기자]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났다. 그 사이 강산이 한 번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참사도 반복됐다. 그래도 4월 16일이 되면 사람들은 모인다. 충북 청주시 변화가 한복판에 의자 70여 개가 놓였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충북기억 문화제'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딘가로 훌쩍 가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싶다. 그런데 마냥 그럴 수만 없는 게 우리의 4월이고 우리의 5월"이라고 했다. 12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쉬운 말을 피했다. 그는 "내가 잘 못했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뭘 못했는지, 뭘 고쳤는지, 뭘 잊고 있었기에 아직도 이 물음이 현재 진행형인지를 묻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그 때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 같이 춥시다"고 전했다.

원문: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44>

17 · ccdn.co.kr

문화제조창서 예술 흐름 잇다



제33회 청주민족예술제 ‘와유 페스티벌’이 오는 18~19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야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술제는 ‘예술, 다섯 갈래의 흐름’을 주제로 한 100인 전시를 시작으로 공연과 야외 체험행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88>

18 · [ccdailynews.com](https://www.ccdailynews.com)

“먹의 번짐, 추상이 되다”...청주 ‘필 소리울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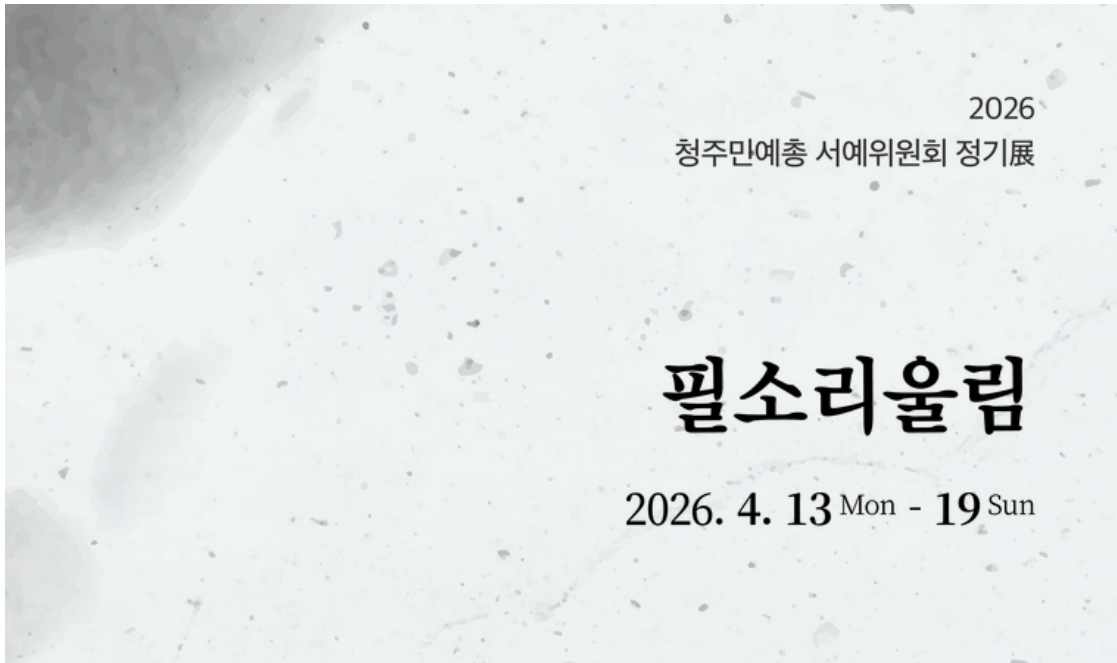
먹과 종이가 만들어내는 우연성과 추상성을 조명하는 서예 전시가 청주에서 열린다. 청주민예총 서예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소1전시실에서 ‘2026 필 소리울림’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먹으로 전하는 우연성과 추상성’을 주제로, 한국 전통 예술의 핵심 재료인 먹 중심으로 펼쳐진다. 먹과 종이가 만나 만들어내는 농담과 번짐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연성과 추상...

실시간뉴스 [취재수첩] 군정 성공은 허태정 인수위, 시민 300명과 대전 밑그림...정책 제안 현장 수렴 금산군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이용하세요" 금산군, 농촌왕진버스 의료지원 서비스 운영 KAIST 단독 전시관...BIO USA 향한 바이오 딥테크 출격 우석대 진천캠퍼스, K-콘텐츠 심포지엄 개최 진천군, 지역 역사·문화자산 활용 체험형 공익활동 추진 진천 문백, 어르신 위한 ‘사랑의 한 상, 기억의 한 장’ 행사 개최 진천군, 동국제약서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 개최 진천군,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 성료

원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312>

19 · [inews365.com](https://www.inews365.com)

청주민예총 서예위



[충북일보] 청주민예총 서예위원회(회장 이희영)가 주최·주관하는

[충북일보]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가입을 시도하고 조직 활동 지원을 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를 받는 충북 거주 대학생 A씨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테러단체 관계자와 접촉하며 조직 가입을 시도하고, 충성 서약(바야트)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조직 가입 시도와 구체적인 충성 서약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간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원문: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914273>

20 · [dynews.co.kr](https://www.dynews.co.kr)

청주민족예술제로 놀러

청주민예총이 주최하는 33회 청주민족예술제

청주민예총이 주최하는 33회 청주민족예술제 'Wa.U. Festival'(와유 페스티벌)이 오는 11~19일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펼쳐진다. '와유, 페스티벌'은 청주민족예술제 슬로건으로 문학, 미술, 서예, 사진, 민화, 영화, 연극, 풍물, 전통음악, 춤, 음악 등 청주민예총 11개 분야 예술인들의 마음을 모아 시민과 함께 즐기는 행사다. 페스티벌은 크게 '100인의 전시', '와유 극장', '예술체험부스·공연행사'로 구성된다.

원문: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686>

21 · docs.google.com

<월간 민예총> 신청서

<월간 민예총> 메일을 받아 보시길 원하거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소식 공유 주의사항: 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나 SNS에 업로드된 자료의 "링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수정 권한 요청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양식이 의심스러운가요? 보고서 설문지 고객센터 양식 소유자에게 문의 Forms 개선 돕기 보고서

원문: https://docs.google.com/forms/d/1uhpXLY5UYLQDdEt6Z10X2wOnFzjlg_V5YN5e9t0PWVc/

연대하고 실천하는 진보예술인 조직 · koreaminyechong.org